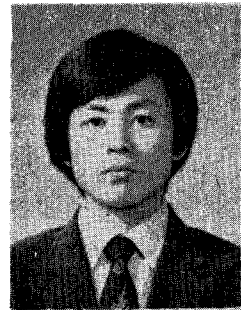


느 개인의 힘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아니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최근 양계협회에서 여러 가지로 양계산업 안정화를 위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모든 양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처음부터 과욕을 부리지 말고 가능한 일부터 하나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1986년 병인년 새해에는 안정된 양계업을 꾸려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

양계산업 발전의 원동력은 양계인의 단합으로 부터



박 광 섭
(제일사료<주> 기획실)

무릇 동서고금(東西古今)을 통하여 한 가지 천리(天理)가 있으니 적자(適者)는 성(盛)하고 부적자(不適者)는 멸(滅)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양계산업을 뒤돌아 보면 그 짧은 역사에 비해 양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 온 것이 사실이나 거대한 물량적 신장에 비하여 유통조직과 생산물의 가공처리 분야 등의 기반 조성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

병인년의 새 아침!

우리 양계인 모두는 공동운명체로서의 소명감으로 이 땅의 양계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한 해가 되도록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이제 필자가 하고 싶은 말들은 이미 그 누군가가 한 번쯤은 거론하였던 내용들이다. 그러나 새해, 새 날에 이 글을 쓰게됨은 좁은 소견이나마 우리의 나갈 지표를 다시 한번 살펴봄과 동시에, 이 땅의 양계산업 발전은 결국 우리들 자신에게

달렸음을 상기시키고 싶은 때문이다.

양계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양계생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에 관한 문제점을 들 수가 있다. 계절적인 수급불균형과 경기변동에 따라 양계생산물의 가격은 등락이 매우 심한 상태인데, 이는 협회(혹은 정부)의 주도하에 상시비축제 및 허가등록제, 유통예고제 등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협회 및 관련 기업체를 위주로 계열화생산체제를 갖추으로써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양계생산물의 유통개선에 관한 문제인데, 이는 농축산물도매시장을 협회차원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농·축협을 통한 산지계통출하와 판매기능의 확대로 수집에서부터 도축,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유통체제를 정립함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면 양계인들

● 새해소망 / 양계업계에 바란다

의 직접적인 공동참여를 모색함도 필요할 듯 한데 대부분의 지역마다 조직되어 있는 계우회, 협력회 그리고 양계협회 지부 등이 이를 어느정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홍보부족에 관한 것으로 얼마전 주제넘게도(?) 계란내의 콜레스테롤을 문제삼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무지(?)는 누구의 책임이겠는가? 결국 우리 양계인들의 책임인 것이다. 국민들이 식생활개선과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을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양계인들이야말로 애국자이며,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다. 홍보활동의 강화를 위해서는 협회가 주체가 되어 매스컴이나 인쇄매체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 양계인들은 우리들 자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생산해낸 축산물들을 자랑해야 할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댓가를 지불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넷째, 양계생산물의 품질개선이 시급하다. 위생적인 생산에서부터 시장의 요구, 즉 소비자의 선호도나 구매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가공처리 및 육질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다섯째, 생산원가의 절감이다. 공업분야에서는 품질관리(TQC)라든가 제안제도(SMBO) 등을 활성화시켜 원가의 절감과 품질의 고급화를 의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들의 농장에서조차 사양관리기술의 개선과 효율적 방역활동, 시설투자의 개선 등을 통

해 생산성 제고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국내 축산물의 생산원가가 외국의 경우보다 낮다면 수입개방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 한다.

여섯째, 안정기금(자조금)의 조성 문제이다. 자조금이란 잘 알고 있듯이 스스로 부과하는 세금(self imposed tax)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선진외국의 경우 이 제도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 우리 양계인들도 지금까지의 공론단계를 떠나 보다 진지하게 이 제도의 확립을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앞에서 언급한 수급과 가격안정, 유통개선, 홍보활동 및 품질개선 등에 고루 이용되어 우리 양계산업을 더욱 부유하게 할 것이다.

이 밖에도 협회가 계속 시도하고 있는 혈청검사 사업이라든가 능력검정사업 등을 확대하여 양계산업의 진일보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양계산업의 발전은 오직 양계인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적자는 성하고 부적자는 멸한다는 엄연한 진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협회와 양계인들 그리고 관련 기업체들의 단합된 힘과 이해야말로 이 땅의 양계산업발전의 원동력인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다. 우리 양계인들 모두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는 자세를 게을리해서는 아니 되겠다. 이 땅의 축산업 발전은 오직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는 병인년이 되길 바란다. ▮

「병아리 및 노계시세업서」
「시세속보」 「사료관측업서」

구독신청은 752-3571·2 로